

Digital Cage

S#1. A의 방 _ 낮

햇살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, 미세하게 들리는 카메라 소리. 찰각- 찰각- 찰각- 찰각-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한숨을 내쉬다. 꺼져가는 핸드폰을 충전하며 다시 사진을 찍는 A.

(T.U) 카메라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A의 방 앞으로 누군가 들어선다.

미숙

아주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!

순간 정적이 되는 방 안. 눈살을 찌뿌리는 A. 표정이 굳는 미숙.

미숙

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?

외면하는 A.

미숙

(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고) 요새 밖에 꽃도 많이 피었더라.
그러지 말고 같이 바람도 좀 쐬고 그러자 딸...

'딸깍'

휴대폰 음량을 올리는 A.
A를 지그시 바라보는 미숙.

A (C.U).

됐다고!!

지금 말고 나중에 가면 될 거 아니야...

'꽝!'

문을 닫고 이내 꺼지는 불.

S#2. 미숙의 방 _ 밤

낮에 봤던 꽃을 바라보는 미숙.
앞 위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.

미숙

(혼잣말) 같이 보면 좋을 걸...

(F.O) 가만히 꽃을 쳐다보는 미숙.

S#3. 어두운 배경

(F.I) 핸드폰으로 꽃을 촬영하는 미숙의 눈동자.

A

(손을 휘적거리며) ... 내 핸드폰

그러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. 시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배경.
당황한 나머지 숨을 몰아쉰다.

A

엄마-! 엄마-! 불 좀 켜줘-

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. 엄마--- 엄마--- 불 좀 켜줘---
더욱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A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.

A

엄마- 엄마야? 뭐하는 건데!!

빛이 들어오는 구멍으로 눈을 가져간다.
구멍으로부터 보이는 화분의 꽃.
(F.I) 놀라서 커지는 A의 눈.

(F.O) 화분의 꽃을 촬영하고 있는 미숙.

미숙

(화분과 A와 어렸을 적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)
어렸을 땐 잘만 쫓아다니던 애가...

방금 찍은 사진을 A에게 전송하는 미숙.

사진과 함께 전송되는 메시지.

(NAR) "딸-! 어제는 엄마가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오늘도 파이팅! 이따 저녁에 보자-!"

S#4. 휴대폰 안

A

(다급한 목소리) 엄마--!!

미숙에겐 들리지 않는 목소리.

카메라로 바라보던 화분으로부터 눈을 떼는 미숙.

이내 함께 종료되어버리는 카메라.

(F.O) 렌즈로부터 들어오던 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그 자리를 채운다.

S#5. A의 방 안 _ 과거

A

(천진난만하게) 김 여사님! 내가 노래 들려줄까?

방 안을 메우는 잔잔하고도 흥겨운 노랫소리.

(F.O) 다정해 보이는 미숙과 A.

S#6. 미숙의 방 _ 현재

과거에 딸이 들려줬던 것과 똑같은 노래를 재생하는 미숙.

이어폰을 통해 점점 커지는 노래 소리.

S#7. 휴대폰 안

휴대폰 안에서도 A의 귀에 소리가 울린다.

미숙의 귀에서 소리가 커질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A.

A

(고통스러워하며 더 큰 목소리로) 엄마!!!!!!!

S#8. 미숙의 방 안

무언가를 느끼고 잠시 이어폰을 귀에서 빼는 미숙.
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집 안에는 미숙밖에 없다.
다시 과거의 감상에 젖으며 잠시 빼 두었던 이어폰을 손에 쥘다.

미숙 (C.U)

(휴대폰 속 시간을 바라보며) 애는 언제 들어오려고 이래?

이내 A 에게 전화를 거는 미숙.
뚜르르- 뚜르르-
하지만 회신이 없는 A.

S#9. 휴대폰 안

미숙에게 자신이 들려주었던 노래를 휴대폰 안에서 들으며 절망하는 A.
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, 자신이 들려주었던 노래를 떠올리는 미숙을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.
이내 눈망울이 젖는 A.

S#10. 거실

굳게 닫혀 있는 A 의 방문을 바라보는 미숙.
이내 메시지를 전송한다.

(NAR) "딸- 많이 늦네..."

같은 시각, A 에게도 어둠 속에서 키보드 창이 나타난다.

급한 마음에 메시지를 입력해보려는 A.

(NAR) "도와줘 엄마-"

(C.U) 순간 놀라는 미숙.

미숙

(당황스러운 얼굴로) 어머 이거 왜 이래?

아무리 메시지를 지워도 저절로 쳐지는 문자

미숙

어머? 진짜 무섭게 왜 이래?

S#11. A의 방 안 _ 가까운 과거

(회상)

미숙

(어렵게 다가가며) 저기 딸- 바쁘니?
핸드폰이 이상해서 말이야...

A

(짜증이 뒤섞인 말투로) 그걸 굳이 지금 물어보아야 돼 엄마?
그냥 껐다 키면 해결되겠지. 그만 좀 귀찮게 해.

S#12. 거실

깜빡이는 미숙의 눈동자, 떨리는 A의 손.
격하게 액정을 두드린다.

딸깍 - - - .

방 안을 가득 메우는 휴대폰 전원 소리.

A의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.

특, 덩달아 흐려지는 A의 시야.